

『老子』 대립구조의 NP, VP유형별 함의 분석

이소동*

<目 次>

1. 서론
2. NP의 유형별 대립구조와 그 함의
 - 1) 병렬 대립구조
 - 2) 偏正 대립구조
3. VP의 유형별 대립구조와 그 함의
 - 1) 주술 대립구조
 - 2) 수식 대립구조
 - 3) 술목 대립구조
 - 4) 연합 대립구조
 - 5) 기타 대립구조
4. 결론

1. 서론

老子는 道에 의한 우주의 창조 원리, 人道에 의한 삶과 지도자의 정치적 태도 등에 대해 현세에 가르침을 펴고자 하였다. 하지만 ‘道可道, 不可道(1장)’, ‘不言之教(43장)’라는 老子的 말에서 알 수 있듯이, 老子는 인간 언어의 한계에 대해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설명이나 논증의 방식을 택하지 않고 역설, 초월, 부정 등의 운문적 표현을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 전 연구에서 老子的 이러한 운용 방식을 대립구조라는 틀로 묶어 4가지 유형과 8가지 함의로 분석한 바 있다. 본 연구는 대립구조 분석의 후속연구로, 그 유형과 함의를 다시 언급하면, 먼저 4가

* 숙명여대 중어중문학부 부교수

지 유형은 아래와 같다.

- 가. 'A-B'유형 (긍정적 동등 대립구조)
- 나. 'A-b'유형 (긍정적 유사 대립구조)
- 다. 'A-不A'유형 (부정적 동등 대립구조)
- 라. 'A-不a'유형 (부정적 유사 대립구조)

4가지 유형 가운데, 가형과 라형이 가장 높은 출현빈도를 보였다. 8종의 함의는 다음과 같다.

- a. '去彼取此'적 대립
- b. 本末적 대립
- c. 두 대립항의 상대적 구분에 대한 경계
- d. 두 대립항의 본성적 가치 긍정
- e. 두 대립항의 상호보완적 가치인정
- f. 道의 변증법적 운동성
- g. 道(者)의 속성, 행위에 대한 상반된 인식, 결과
- h. 현세의 동작, 사건에 대한 상반된 대상, 결과

a, b는 두 대립항의 가치가 동등하지 않다. 하나가 취해야 되고 근본이 된다면, 다른 하나는 버려야하고 지엽이 되는 관계이다. 반면에, c~f는 두 대립항의 가치가 동등하다. g, h는 모두 현세의 상리와 괴리되는 점을 나타낸 것이지만, 좀 더 세밀하게 구분하자면 g는 도의 속성 혹은 도자의 행위에 대해 현세인들의 상리와 상반된 인식을 나타내고 있으며, f는 도의 관점에서 볼 때, 현세의 행위와 사건에 대한 대처와 결과가 현세인이 생각하는 상리와 상반됨을 나타낸다. 예를 들면,

- (1) 絶聖棄智, 民利百倍(19장)
(성스런 체함을 그만두고 아는 체함을 버리면 사람에게 이로우이 백 배나 될 것이다)

예문(1)에서는 2개의 대립구조가 나타나는데, 먼저 '絶聖', '棄智'의 두 술목 대

립구조이다. 현세에서 ‘聖’과 ‘智’는 모두 지향해야할 덕목이지만 끊고 버린다고 하였으니, 이는 道者의 행위에 대한 현세의 상반된 인식을 나타내고 있다. 또 하나는 두 대립항 ‘絶聖棄智’와 ‘民利百倍’의 수식 대립구조이다. 현세에서 ‘絶聖棄智’의 행위는 백성의 이로움을 없애는 것으로 인식된다. 하지만 백성의 이로움이 오히려 백배나 된다고 하였으니, 도의 관점에서 본 현세의 행위에 대한 현세의 상리와 상반된 결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老子』에 출현하는 대립구조는 모두 281례로 집계되며,¹⁾ NP, VP 유형별 7종 구조로 나눌 수 있다. 구조별로 나타내는 대립구조 형식과 함의가 다른데, 아래에서는 NP, VP 유형별 대립구조를 분석하고 그 함의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2. NP의 유형별 대립구조와 그 함의

『老子』에서 대립구조가 NP의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는 많지 않다. 주어나 목적어 위치에서 병렬구조와 偏正구조(명사성 수식구조)의 몇몇 용례가 보인다.

1) 병렬 대립구조

병렬구조는 모두 10회로, 주어 위치에서만 출현하며, 예외 없이 의미가 대등한 고유형에 해당한다. 그 함의는 ‘去彼取此’적 대립과 변증법적 운동성을 나타내는 하나씩의 용례를 제외하면, 모두 상대적 구분에 대한 경계를 나타낸다.

① ‘去彼取此’적 대립

(2) 得與亡孰病? (44장)

(얻음과 잃음 어느 것이 병인가?)

1) 『『老子』 대립구조의 유형과 함의 분석』(이소동, 2018)에서는 대립구조를 모두 278례로 파악했으나 본고에서는 재분석을 통해 281례로 조정하기로 함.

‘得’과 ‘亡’은 상대적 인식에서 생겨난 것이 아닌 ‘亡’의 가치 편중에 중점을 두고 있다. 바로 다음 구인 “甚愛必大費, 多藏必厚亡(너무 아끼면 크게 낭비하고 많이 쌓아두면 반드시 크게 잃는다)”을 보면 명확해진다. 즉 ‘亡’은 『老子』에서 가장 높은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 비움(虛)의 다른 표현으로, 취해야 할 행위이며, ‘得’은 이와 반대로 버려야 하는 행위인 것이다.

② 두 대립항의 상대적 구분에 대한 경계

(3) 有無相生 (2장)

(유와 무는 서로 생겨난다)

(4) 善之與惡, 相去幾何(20장)

(《예》라는 대답과 《응》이라는 대답의 차이가 얼마이겠는가?)

2장에서 ‘有無相生’의 ‘有無’에 이은 ‘難易’, ‘長短’, ‘高下’, ‘音聲’, ‘前後’와 20장의 ‘善惡’은 모두 상대적 인식에 의해 생겨난 것²⁾으로, 그러한 구분의 무의미함과 폐단에 대해 나타내고 있다.

③ 道の 변증법적 운동성

(5) 寵辱若驚(13장)

(충애와 수모를 받음을 모두 놀란 듯이 한다)

13장의 ‘寵辱若驚’의 의미는 판본별로 조금씩 다르다. 이 구절에서 알 수 있는 것은 ‘寵’과 ‘辱’을 동일하게 여기고 있음이다. 왕필은 충애를 얻으면 반드시 모욕을 당할 때가 있고 영화로운 때가 있으면 반드시 환난을 당할 때가 있다³⁾고 하였

2) 2장의 관련부분에 대한 의견은 크게 둘로 나뉜다. 본문에서는 이소동(2017)의 논증을 따르기로 한다. (이소동, 『老子』 ‘道’, ‘有’, ‘無’의 관계에 대한 문맥적 고찰, 『중국문화연구』 70집, 2017, 158-165참고)

3) 김학목, 『老子 도덕경과 王弼의 주』, 서울, 홍익출판사, 2012, 97쪽: “寵必有辱, 榮必有患, 榮辱等, 榮患同也.”

다. 진고응 또한 왕필의 견해와 그 다음 구절인 ‘寵爲下’에 대하여 석덕청의 설을 함께 인용하여 왕필의 의견에 동의하였다.⁴⁾ 이렇게 볼 때, 충애와 모욕은 동일한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충애를 받을 때가 있으면 또한 모욕을 받을 때가 있으니, 이는 곧 도의 운동성에 의한 순환으로 생이 있으면 죽음이 있는 것과 동일한 맥락으로 볼 수 있다.

2) 偏正 대립구조

『老子』에서 편정 대립구조는 모두 6례로 1례의 다형을 제외하고는 모두 라형에 해당한다. 열거하면 아래와 같다.

다형: 無狀之狀(14장)

라형: 無爲之事(2장), 不言之教(2장, 43장) 無物之象(14장) 無爲之益(43장)

위의 대립구조는 모두 道(者)의 속성, 행위에 대한 현세의 상리와 상반된 인식⁵⁾을 나타낸다.

(6) 是謂無狀之狀, 無物之象, 是謂惚恍(14장)

(이를 일러 〈모양 없는 모양〉, 〈형체 없는 형상〉이라 하며, 이것을 〈황홀〉이라 한다)

14장은 도의 실체에 관하여 묘사한 내용인데, 그 앞부분에 도체에 대하여 보아도 보이지 않고, 들어도 들리지 않고, 잡아도 잡히지 않는다고 하였다. 상리적으로 모양(狀), 형상(象)이 있음은 우리의 감각기관으로 감각함이 전제되어 있다. 여기서 모양 없는 모양, 형체 없는 형상이라고 역설하고 있는 것은, 앞에서 언급했던

4) 陳鼓應, 『老子今注今譯』, 北京, 商務印書館, 2003, 121쪽: 釋德清說: “世人皆以寵爲榮, 却不知寵乃是辱。”

5) 『『老子』 대립구조의 유형과 함의 분석』(이소동, 2018)에서는 상기 대립구조를 현세의 사건에 대한 현세의 상반된 인식으로 파악했으나 재분석을 통해 조정함.

‘有’와 ‘無’의 관계처럼, 바로 우리 감각기관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 텅 빈, 즉 ‘無’ 속에는 끊임없는 도의 운동성으로 인해 모든 모양과 형상이 갖추어져 있음을 말한다.

‘無爲之事(2장)’, ‘不言之教(2장, 43장)’, ‘無爲之益(43장)’ 역시 동일한 함의를 지닌다. 상리적으로 볼 때, 일(事:A), 가르침(教:A), 유익함(益:A)이 되려면 무언가 일삼고(爲:a), 말하고(言:a), 해야(爲:a) 하지만, 도의 관점에서 일삼지 말고(無爲:부a), 말하지 말고(不言:부a), 하지 말 것(不爲:부a)을 주장한다. 현세의 관점에서 보면 당연히 역설적이다. 이 세 구조는 모두 다형의 대립구조를 이루고 있지만, 그 핵심 의미는 A의 속성에 해당하는 ‘부a’ 즉 ‘無爲’와 ‘不言’에 있다.

3. VP의 유형별 대립구조와 그 함의

『老子』의 대립구조는 대부분이 VP유형에서 나타나는데, 아래에서는 주술, 술목, 수식, 술보, 연합구조의 5가지 VP유형을 통해 대립구조의 의미 관계와 그 함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1) 주술 대립구조

주술 대립구조는 두 대립항이 주어와 술어의 위치에서 대립구조를 형성하고 있는 형태로서, 4가지의 유형이 모두 나타난다. 두 대립항이 주로 판단문이나 묘사문에서 주어와 핵심 술어의 관계로 직접적인 의미관계를 형성하는데, 의미유형이 대등한 가형과 다형은 주로 판단문에, 의미유형이 다른 나형과 라형은 주로 묘사문에 출현하고 있다. 드물지만 서술문에서도 간혹 출현하며, 술어 동사가 소위 ‘준계사’라 불리는 ‘爲’, ‘若’등으로 충당되는 준판단문의 형태를 띠기도 한다. 주술 대립구조는 모두 64회 출현하며, 모두 4가지의 함의를 띤다. 그 중 거의 대부분이 도와 현실에 대한 상반된 인식과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① 두 대립항의 상대적 구분에 대한 경계

- (7) 天下皆知美之爲美, 斯惡已(2장)
(천하가 모두 아름다움이 아름다움이 됨을 안다. 이는 추함 때문이다)
- (8) 皆知善之爲善, 斯不善已(2장)
(모두 خوبی خوبی 됨을 안다. 이는 불선 때문이다)

예 (7)의 ‘斯惡已’에서 지시사 ‘斯’는 곧 ‘美’를 가리켜, ‘美는 곧 추함이다 혹은 추함 때문이다⁶⁾’의 의미로, ‘美’와 ‘惡’이 주어와 술어가 되는 판단문 형식의 대립 구조를 이루고 있다. 그 함의는, 2장의 ‘有無’, ‘難易’, ‘長短’ 등과 같은 현세의 상대적 인식에 대한 한계를 나타낸다. 예(8) 역시 동일한 대립의미를 띤다. 단지 뒤의 대립항이 부정형인 점만 다르다. ‘斯不善已’에서 지시사 ‘斯’는 앞의 ‘善’을 가리키며, ‘善’, ‘不善’이 양자의 상호 관계 속에서 인위적으로 구분된 것으로, 현세의 상대적 인식에 대한 한계를 나타내고 있다. 주술 대립구조가 상대적 구분에 대한 경계를 나타내는 용례는 위의 두 용례가 전부이다.

② 도의 변증법적 운동성

- (9) 正復爲奇, 善復爲妖(58장)
(올바른 것은 다시 이상한 것이 되고 선은 다시 요상한 것이 된다)

58장의 ‘正復爲奇’, ‘善復爲妖’에서 ‘正’과 ‘奇’, ‘善’과 ‘妖’는 동등한 의미유형의 두 대립항으로 주술 대립구조를 이루고 있으며, 준판단문의 형태를 띠고 있다. 도의 끊임없는 운동성을 나타내고 있으며, 두 대립항이 주술구조를 이루는 것은 이 예가 유일하다.

6) 2장의 이 구절 역시 의견이 분분한데, 본문에서는 이소동(2017)의 논증에 따르기로 한다. (이소동, 『《老子》 ‘道’, ‘有’, ‘無’의 관계에 대한 문맥적 고찰』, 『중국문학연구』 70집, 2017, 158-165 참고)

③ 道(者)에 속성, 행위에 대한 상반된 인식, 결과

- (10) 明道若昧, 進道若退(41장)
(밝은 도는 어두운 듯하고 나아가는 도는 물러나는 듯하다)
- (11) 善用人者爲之下(68장)
(훌륭한 고용인은 스스로를 낮춘다)
- (12) 上德不德(38장)
(높은 덕을 가진 자는 (자기가) 덕스럽다 여기지 않는다)
- (13) 天地不仁, 聖人不仁(5장)
(천지는 불인하며, 성인도 불인하다)
- (14) 大方無隅, 大器晚成, 大音希聲, 大象無形(41장)
(큰 네모는 모서리가 없고, 큰 그릇은 완성됨이 없으며, 큰 음은 소리가 없으며, 큰 그림자는 형체가 없다)

위의 예시에서 하나의 대립항이자 주어에 해당하는 ‘明道’, ‘進道’, ‘善用人者’, ‘上德’, ‘天地’, ‘聖人’, ‘大方’, ‘大器’ 등은 모두 道 혹은 道者の 또 다른 이름이다. 또 다른 대립항으로서, 핵심 술어에 해당하는 ‘昧’, ‘退’, ‘下’, ‘不德’, ‘不仁’, ‘無隅’, ‘晚成’은 도의 큼과 현세인의 제한된 의식 작용으로 인한 도에 대한 현세의 왜곡된 인식을 나타내고 있다. 65장에서 이른 바 “신비스러운 덕이 깊고 커서 현세의 일과 반대가 되는 것”⁷⁾이다.

41장에서 ‘明道若昧’, ‘進道若退’에 이어서 나오는 ‘夷道若類’, ‘上德若谷’, ‘大白若辱’, ‘廣德若不足’, ‘建德若偷’, ‘質真若渝’는 모두 동일한 주술구조로 같은 함의를 나타낸다. 이뿐 아니라 41장은 전체의 내용이 도의 큼과 이로 인해 인간의 의식으로 왜곡되는 현실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예(14)에서 ‘大方’, ‘大器’, ‘大音’, ‘大象’은 실제로 모서리가 없고, 완성되지 않고, 소리가 없고, 형체가 없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의식작용으로 볼 때 그러한 듯함을 말한 것으로, 45장에서 ‘大成若缺’, ‘大直若屈’, ‘大巧若拙’, ‘大辯若訥’ 구절의 의미와 다르지 않다. 38장에서 ‘上德’은 지극한 덕을 가진 자를 말하며, ‘不德’은 ‘덕이라고 여기지 않는다’ 혹은 ‘덕이 있다고 여기지 않는다’의 의미이다. 높은 덕을 지닌 자는, 현세의 관점에서 볼 때, 스

7) 『老子』 65장: “玄德深矣, 遠矣, 與物反矣.”

스로 덕이 있음을 알지만, 도의 관점에서 진정한 上德者는 자기의 덕을 덕으로 여기거나 이에 의지 하지 않는다.

④ 현세의 행위, 사건에 대한 상반된 결과, 방법, 속성

- (15) 治大國若烹小鮮(60장)
(대국을 다스릴 때는 작은 생선을 요리하듯 한다)
- (16) 爲者敗之, 執者失之(29장)
(행하는 자는 패하고 잡는 자는 잃는다)
- (17) 自見者不明, 自是者不彰(24장)
(스스로 드러내는 자는 밝아질 수 없고, 스스로 옳다 여기는 자는 돋보일 수 없다)
- (18) 信言不美, 美言不信(81장)
(믿음직스러운 말은 아름답지 않고 아름다운 말은 믿음만하지 않다)

60장의 ‘治大國若烹小鮮’에서 ‘治大國’과 ‘烹小鮮’은 서로 상반되는 대립구이다. ‘治大國’은 현세의 관점에서 볼 때, 각종 법률과 제도를 필요로 하는 번거롭고 아주 복잡한 일이다. 반면에 ‘烹小鮮’은 소란스럽게 하지 않고⁸⁾ 아주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것이다. 나라를 다스릴 때 인위적으로 만든 번잡하고 간간한 법률 제도가 아닌, 자연스럽고 억지스럽지 않은 도의 방법, 즉 ‘無爲’로 다스릴 것을 의미한다. 즉 현세의 인식상 인위적 절차와 방법이 따르는 ‘大小事’와 그와 상반된 도의 법칙에 맞는 ‘無爲’의 행위가 대립되고 있다. 예(16)에서 ‘爲’와 ‘敗’가 대립항을 이루고 있는데, 현세의 관점에서 볼 때 ‘억지로 노력(爲)’하면, 혹은 해야만 결과적으로 성공할 수 있다. 하지만 도의 관점에서 볼 때는 정반대의 결과(敗)가 된다. 다음 구인 ‘執者失之’ 역시 동일한 구조이다. 서술문이지만 주부의 핵심인 동작 ‘爲’, ‘執’과 술어의 핵심동사 ‘敗’, ‘失’이 대립되고 있다.

예 (17), (18)은 모두 묘사문에서 주어와 술어의 대립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自見者’, ‘自是者’ 즉 현실에서 스스로를 드러내고 옳다고 주장하는 자는 모두 자

8) 김학목, 『老子 도덕경과 王弼의 주』, 서울, 홍익출판사, 2012, 289쪽: “不扰也, 躁則多害, 靜則全真, 故其國彌大, 而其主彌靜, 然後乃能廣得衆心矣。”

기를 내세우고자 하는 의도가 있지만 도의 관점에서 볼 때, 오히려 돋보이지 못한다고 하였으니, 현세의 상리와 상반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信言’, ‘美言’은 현세의 사람들에게 ‘아름답고’, ‘믿을만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도의 관점에서 볼 때 이와는 정반대로 ‘아름답지 않고’, ‘믿을만하지 못하다’고 하여 상리와 상반된 속성을 나타내고 있다.

2) 술목 대립구조

술목 대립구조는 『老子』에서 16회 출현한다. 모두 역설구조를 이루고 있으며, 예외 없이 도의 속성, 행위에 대한 상반된 인식과 결과를 나타낸다.⁹⁾

- (19) 絕聖, 棄智(19장)
(성스러움을 끊고, 지혜를 버린다)
- (20) 爲無爲, 事無事, 味無味(63장)
(억지로 함이 없음을 실천하고 일함이 없는 일을 실행하고, 맛없는 맛을 맛보십시오)
- (21) 是以聖人欲不欲, 不貴難得之貨, 學不學(64장)
(그러므로 성인은 욕심을 없애려는 욕심만이 있고, 귀하다고 하는 것을 귀히 여기지 않고, 배우지 않음을 배운다)
- (22) 是謂行無行, 攘無臂, 扔無敵, 執無兵(69장)
(이를 일러 진 없음을 진 치고, 팔 없음을 걷어 올리고, 적 없음을 대적하고, 무기 없음을 잡는다는 것이다)

위의 술목 대립구조들은 모두 道者의 행위를 역설적 표현으로 나타내고, 이러한 행위는 현세의 상리와 완전히 상반되고 있다. 19장에서 현세에서 가장 중시되는 덕목인 ‘聖’, ‘智’를 끊고 버린다고 하였으니, 현세의 상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道者의 행위이다. 絕仁, ‘棄義’, ‘絕巧’, ‘棄利’가 후속구로 이어지고 있다. 63장, 64장의 ‘爲無爲’, ‘事無事’, ‘味無味’, ‘欲不欲’, ‘學不學’은 모두 긍정과 부정형태를

9) 「『老子』 대립구조의 유형과 함의 분석」(이소동, 2018)에서 “知不知上, 不知知病(71장)”을 ‘거피취차’적 술목구조로 파악했으나, 이 구절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하여 본 연구에서는 대립구조에서 제외하기로 함.

술목구조로 엮어 마치 언어유희처럼 그 의미조차 이해할 수 없는 역설구조로 엮어 놓았는데, 의미의 핵심은 목적어에 해당하는 ‘無爲’, ‘無事’, ‘無味’, ‘不欲’, ‘不學’으로, 모두 도자의 행위이다. ‘無爲’, ‘無事’는 억지로 무언가를 하려하지 않음이고, ‘無味’는 老子가 五味로 인해 사람들의 입맛이 고약해진다¹⁰⁾고 했듯이, 어느 특정한 맛에 길들여지지 않음을 말한다. ‘不欲’ 역시 억지로 무엇을 탐하려고 하지 않음이며, ‘不學’은 세상의 구분되고 대상화된 지혜를 배우지 않음을 말한다.

21장의 ‘行無行’, ‘攘無臂’, ‘扔無敵’, ‘執無兵’ 역시 의미의 핵심은 목적어인 ‘無行’, ‘無臂’, ‘無敵’, ‘無兵’에 있지만, 전체 구의 의미를 완전히 대변하지는 않는다. 이장의 전체 의미는 老子의 ‘不爭’, ‘不戰’ 의식을 나타낸 것인데, 그 핵심은 이 구의 바로 앞 구절에서 ‘不敢爲主, 爲客’, ‘不敢進寸, 退尺’이라고 했듯이, 전쟁은 물러나고, 유약함, 자애로움으로 승리함을 말하고 있다. 아래의 『老子』 구절과 일맥상통한다.

夫慈以戰則勝(67장: 자애로써 싸우면 이긴다) / 善戰者不怒, 善勝敵者不與(68장: 잘 싸우는 자는 화내지 아니하며 잘 이기는 자는 더불어 싸우지 않는다) / 天之道不爭而善勝(73장: 하늘의 도는 다투지 않아도 늘 승리한다) / 弱之勝強, 柔之勝剛(78장: 弱이 強을 이기고 柔가 剛을 이긴다)

위의 구절들을 참고해서 21장의 해당구절을 풀어보면, 우선 ‘行無行’에서 ‘行’은 대오를 짓고 진을 치는 것을 의미한다. ‘진 없음을 진 친다’ 함은 진을 치지 않음이 아니라 진고응의 주장대로 비록 진이 있지만 진이 없는 듯 보임이다.¹¹⁾ 73장에서 처럼 전쟁을 하지 않고 이기는 것이 최상이지만 내부적으로 드러내지 않을 뿐 자기방어를 위한 충분한 전투력은 필요하기 때문이다. ‘攘無臂’은 본래 ‘攘臂’에서 응용된 것으로, ‘攘臂’은 분노해서 팔을 치켜드는 것인데, 팔 없음을 치켜든다 함은 분노하여 팔을 치켜들려고 하지만 치켜들 팔이 없어 보임이다. ‘扔敵’은 본래 ‘대적하다’의 의미인데 여기서 ‘적이 없음을 대적한다’라고 한 것은 비록 적과 대면하고

10) 『老子』 12장: “五味令人口爽”

11) 陳鼓應, 『老子今注今譯』, 北京, 商務印書館, 2003, 315쪽 참고.

있지만 달려 들 적이 없는 듯해 보임이다. 즉 전혀 싸울 기세가 없이 한 발 물러서서 자애로써 적들을 대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행위는 모두 도자의 행위로, 일반인의 상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행위이다.

3) 수식 대립구조

수식 대립구조¹²⁾는 『老子』에서 63회 출현한다. 모두 4가지 유형의 함의를 가지는데, 그 중 도와 현세의 사건에 대한 상반된 인식을 가장 많이 나타내고 있다.

① ‘去彼取此’적 대립

- (23) 曲則全, 枉則直, 窪則盈, 弊則新, 少則得(22장)
(굽으면 온전해지고, 휘면 펴진다. 패이면 차게 되고, 낡으면 새로워진다. 줄이면 얻게 되고 늘리면 미혹된다)
- (24) 物或損之而益, 或益之而損(42장)
(사물은 덜어내면 많아지고 보태면 준다)

22장에서 ‘曲’과 ‘全’, ‘枉’과 ‘直’, ‘窪’와 ‘盈’, ‘弊’와 ‘新’, ‘少’와 ‘得’은 조건과 결과를 나타내는 수식구조로 되어 있으며, 전자는 취해야 될 대상이며, 후자는 버려야 할 행위이다. 42장의 ‘損’과 ‘益’도 동일하게 분석된다.¹³⁾

② 道の 변증법적 운동성

- (25) 物壯則老(30장)
(만물은 건장하면 늙게 된다)

12) 수식 대립구조는 일반적인 부사어와 중심어의 동사성 수식관계 외에, 중국어에서 구와 문장의 구분이 모호한 관계로, 조건, 원인, 시간, 양보 등을 나타내는 종속 복문도 함께 포함하기로 한다.

13) 두 예시의 함의에 대해 도의 운동성으로 보는 견해도 있지만, 본문에서는 이소동(2018)에서 상세히 논증한 바, 이를 따르기로 함. (이소동, 「『老子』 대립구조의 유형과 함의 분석」, 『중국문화연구』 42집, 2018, 35쪽 참고.)

- (26) 將欲歛之必固張之(36장)
(오므리려고 한다면 반드시 퍼 주어야 한다)

30장과 36장에서 두 대립항 '壯'과 '老', '歛'과 '張'은 모두 조건과 결과를 나타내는 수식구조이다. 하나의 대립항이 옳고 다른 하나의 대립항이 틀린 가치 편중적 함의가 아니라 두 대립항이 동등한 가치로 '道紀'에 따라 끊임없이 반복하는 도의 변증법적 운동성을 나타내고 있다. 도의 변증법적 운동성을 나타내는 수식 대립구조는 모두 6회 출현한다.

③ 道(者)의 속성, 행위에 대한 상반된 인식, 결과

- (27) 爲無爲則無不治(3장)
(無爲를 행하면 다스려지지 않음이 없다)
- (28) 天地以其不自生故能長生, 聖人後其身而身先(7장)
(천지는 스스로 살려지지 않기 때문에 오래 살고, 성인은 자기를 뒤로 하기 때문에 앞서게 된다)
- (29) 不自見故明, 不自是故彰(22장)
(스스로 드러내지 않기에 밝아지고, 스스로 옳다 여기지 않기에 돋보인다)
- (30) 不出戶, 知天下(47장)
(문밖에 나가지 않더라도, 천하를 안다)
- (31) 以無事取天下(57장)
(無事로써 천하를 취한다)

3장에서 두 대립항 '爲無爲'와 '無不治'는 조건과 결과를 나타내는 수식대립구조이다. 도자는 역지로 무엇을 하려 하지 않는다. 그렇게 하면 현세의 상리로 볼 때 잘 다스려지기 어려울 듯하나 그와는 정반대로 다스려지지 않음이 없다고 하였다. 7장과 22장의 예시는 두 대립항이 원인과 결과를 나타낸다. 도자는 살기위해 의도적으로 노력하지 않고(不自生), 자기를 뒤로 하고(後己身), 드러내지 않고(不自見), 옳다고 여기지 않는다(不自是). 이러하기 때문에 상리와는 정반대로 장수하고(長生), 남보다 앞서게 되며(先身), 밝아지고(明), 돋보인다(彰)고 하였으니,

도자의 행위에 대한 현세의 상반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47장에서 두 대립항인 ‘不出戶’와 ‘知天下’는 양보관계를 나타내는 수식구조를 이루고 있다. 밖으로 나가 지 않으면 당연히 천하를 알 수 없지만, 알 수 있다고 하였으니, 도자의 행위에 대한 현세의 상반된 인식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57장의 “以無事取天下”는 부사어에 해당하는 개사구조 ‘以無事’와 중심어 ‘取天下’가 수식구조를 이루고 있으며, 함의는 위의 3장과 대동소이하다.

④ 현세의 행위, 사건에 대한 상반된 결과, 방법, 속성

- (32) 甚愛必大費, 多藏必厚亡(44장)
(너무 아끼면 크게 낭비하고 많이 쌓아두면 반드시 크게 잃는다)
- (33) 民之從事, 常於幾成而敗之(64장)
(언제나 거의 성공할 즈음에 실패하고 만다)
- (34) 其出彌遠, 其知彌少(47장)
(멀리 나가면 나갈수록 아는 것이 점점 적어진다)
- (35) 法令滋彰, 盜賊多有(57장)
(법령이 복잡하면 도적이 더 많아진다)

44장은 ‘甚愛’와 ‘大費’, ‘多藏’과 ‘厚亡’이 각각의 두 대립구로 조건과 결과를 나타내는 수식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현세에서는 아낄수록 많이 모을 수 있고, 많이 쌓아두면 더 늘어나는 것이 상리이지만 도의 관점에서 볼 때, 오히려 크게 낭비하고, 잃는다고 하였으니 현세의 행위에 대한 상반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재화나 명성에 집착하면 끝내 모든 것을 잃게 됨은 『老子』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비움의 다른 표현이라 할 수 있다. 64장은 ‘幾成’과 ‘敗之’가 두 대립구로, 시간과 결과의 의미구조를 띠는 수식구조이다. 현세의 상리로 볼 때, 거의 성공할 즈음은 이루어진 것이나 다름없지만, 도의 관점에서 실패한다고 하였으니, 이는 바로 그 다음 구에서 말하는 것¹⁴⁾처럼, 처음 시작할 때처럼 신중하게 끝을 맺어야 함을 말한다.

47장, 57장은 모두 전, 후구가 조건과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현세의 상리로

14) 『老子』 64장: “慎終如始, 則無敗事”

볼 때, 멀리 나가서 다니고 배울수록 견문이 더 넓어지지만 이는 것이 더 적어진다고 하였다. 이는 다니면서 현세의 지식을 배우면 배울수록 진정한 앎, 즉 '明'과 점점 멀어짐을 말한다. 57장에서는 도둑과 범죄를 막기 위해 법령을 많이 만들지만 오히려 도적이 늘어난다고 하였으니, 현세의 기대와 상반됨을 나타낸다. 인간의 왜곡된 의식으로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것들에 대한 부작용을 나타내고 있다.

4) 연합 대립구조

연합 대립구조는 『老子』에서 모두 98회 출현하며, 출현빈도가 가장 높은 대립구조이다. 현세의 행위, 사건에 대한 상반된 결과, 방법을 제외한 7종의 함의가 모두 나타나며, 그 중에서도 특히 '去彼取此'적 대립과 도의 속성에 대한 상반된 인식을 나타내는 경우가 가장 많이 보인다.

① '去彼取此'적 대립

- (36) 虛其心, 實其腹, 弱其志, 強其骨(3장)
(마음은 비우고 배는 튼튼하게 하며 뜻은 약하게 하고 뼈는 튼튼하게 한다)
- (37) 知人者智, 自知者明(33장)
(남을 아는 것은 지이고, 자기를 아는 것은 명이다)
- (38) 處其實, 不居其華(38장)
(열매에 머무르고 꽃에 거하지 않는다)

3장에서는 '虛其心'과 '實其腹', '弱其志'와 '強其骨'이 각각 연합구조의 형태로 대립을 이루고 있다. '心'과 '志'는 자기의 생각, 감정, 의식으로 비우고 약하게 해야 되는, 즉 버려야 할 대상이며, '腹'과 '骨'은 "타고난 자연 상태 그대로의 것으로서, 인위적 가치 체계가 스며들지 못하는 부분"¹⁵⁾으로, 취해야 하는 대상인 것이다. 33장은 '知人者智'와 '自知者明'이 연합 대립구조를 이루고 있다. 이미 인도가

15) 최진석, 『老子的 목소리로 듣는 도덕경』, 경기, 소나무, 2001, 55쪽 참조.

갖추어진 나를 정확히 알고 탐구하는 행위가 바로 도를 실천하는 행위로, 마땅히 취해야 되며, 반대로 남에게서 구하는 행위, 즉 '知'는 인간이 만들어 놓은 왜곡된 허상을 쫓는 행위로 버려야 되는 것이다. 38장에서 열매(實)는 도체, 즉 '明'의 대상이 되며, 꽃(花)은 도의 찌꺼기로 '知'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있다.

② 本末적 대립

(39) 有之以爲利, 無之以爲用(11장)

(有는 이로움을 위한 것이지만 無는 쓸모가 생겨나게 하는 것이다)

전, 후구는 '有'와 '無'의 역할을 연합구조를 통해 대립시키고 있다. 11장에서 '有'에 해당하는 수레바퀴, 집, 그릇은 모든 사람들의 쓸모와 이로움을 위해 만들어 지지만 그것들이 쓸모가 있기 위해서는 바퀴살이 모이는 바퀴통(穀)이 비어야 되고, 그릇과 집 안이 비어 있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여기서의 '有'와 '無'의 대립은 無가 有의 근본이 되는 본말적 대립관계를 나타내며, 연합구조에서는 이 용례가 유일하다.

③ 두 대립항의 상대적 구분에 대한 경계

(40) 善者吾善之, 不善者吾亦善之(49장)

(선한 사람에게 나도 선으로 대하지만 선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선으로 대한다)

(41) 信者吾信之, 不信者吾亦信之(49장)

(신의 있는 사람에게 나도 신의로 대하지만, 신의 없는 사람에게도 신의로 대한다)

49장의 장지는 일체의 분별심이 없는 성인의 마음을 나타낸다. 여기서 '善者'와 '不善者', '信者'와 '不信者'는 '美醜', '善惡'과 같은 현세의 의식이 인위적으로 만든 기준으로, 상대적으로 구분된 표현에 불과하다. 성인은 이러한 상대적 기준에 의해 분별된 대상을 현세의 눈 그대로 보지 않고 일체의 분별없이 바라볼 뿐이다.

④ 두 대립항의 본성적 가치 긍정

(42) 物或行或隨, 或歔或吹, 或強或贏, 或挫或隳(29장)

(만사는 다양해서 앞서가는 것이 있는가 하면 뒤따르는 것도 있고 숨을 천천히 쉬는 것이 있는가 하면 빨리 쉬는 것도 있고 강한 것이 있는가 하면 약한 것도 있고 꺾이는 것이 있는가 하면 떨어지는 것도 있다)

29장은 4개의 연합구조로 접속사 ‘或’으로 대립항들이 연결되어 있다. 모두 만물의 다양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현세의 의식에 의해 구분화된 기준으로 어느 하나에 시비와 선악을 두어서는 안 됨을 나타낸다.

⑤ 두 대립항의 상호보완적 가치인정

(43) 無名天地之始, 有名萬物之母(1장)

(무는 천지의 시작이고, 유는 만물의 어머니이다)

(44) 知其雄, 守其雌(28장)

(수컷을 알고 그 암컷을 지킨다)

(45) 萬物負陰而抱陽(42장)

(만물은 음을 등에 지고 양을 껴안고 있다)

1장에서의 ‘有’, ‘無’는 상대성, 본말관계와는 다르다. ‘無’와 ‘有’의 가치 동등적인 측면에서 도의 같지만 다른 두 모습에 대해 말하고 있다. 28장과 42장의 ‘雄’과 ‘雌’, ‘陰’과 ‘陽’ 모두 각각의 연합 대립구조에 속하는 핵심 대립항으로 하나로 존재할 수 없는 상호보완적 가치를 나타내고 있다.¹⁶⁾

⑥ 道の 변증법적 운동성

(46) 得之若驚, 失之若驚(13장)

16) 자세한 함의에 대해서는 이소동(2018)을 참고하기로 하고 본 문에서는 생략하기로 함. (이소동, 『『老子』 대립구조의 유형과 함의 분석』, 『중국문화연구』 42집, 2018, 41-42쪽 참조.)

(얻어도 경이롭고, 잃어도 경이로우니)

(47) 禍兮福之所倚, 福兮禍之所伏(58)

(화라는 것은 복이 숨어 있는 것이고 복이라는 것은 화가 숨어 있다)

13장은 위의 병렬 대립구조에서 언급했듯이, 여기서 얻고 잃는 것은 총애와 모욕(寵辱)이다. '寵辱若驚'의 의미를 푼 것으로 '寵'과 '辱'은 도의 운동에 따른 순환의 결과이다. 58장의禍와 福도 마찬가지로 화속에 이미 복이 들어있고 복 속에 이미 화가 들어있듯이, 화가 오래되면 복이 되고 복이 오래 되면 화로 순환됨을 의미한다.

⑦ 道(者)의 속성, 행위에 대한 상반된 인식, 결과

(48) 生而不有, 爲而不恃, 長而不宰(51장)

(낳았으며 소유하지 않고, 하고도 거기에 의지하지 않으며, 자라게 하고도 주관하지 않는다)

(49) 聖人不行而知, 不見而名, 不爲而成(47장)

(성인은 돌아다니지 않고도 알고 보지 않고도 흰하고 억지로 하는 일 없이도 모든 것을 이룬다)

(50) 視之不足見, 聽之不足聞, 用之不足旣(35장)

(도는 보아도 보이지 않고 들어도 들리지 않지만 써도 다함이 없다)

도의 속성, 행위에 대한 상반된 인식, 결과를 나타내는 함의는 연합 대립구조에서 모두 43례로, 가장 많이 나타난다. 대부분이 위의 용례와 같은 구성을 띠고 있다. 51장과 47장은 각각 3개의 연합구조가 역접의 의미를 나타내는 접속사 '而'의 전후로 대립구조를 형성하고 있으며, 35장은 접속사가 없이 전후구의 대립구조가 3개의 연합구조를 이루고 있다. 모두 도와 성인의 특징을 묘사하고 있는데, 도 혹은 도자의 속성, 행위는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상리와 괴리됨을 나타낸다.

5) 기타 대립구조(24례)

기타 대립구조는 위에서 서술했던 NP, VP유형 외에 두 대립항의 의미관계가 직접적으로 발생하지 않는 대립구조로, 대립항의 위치에 따라 전체를 개괄하면 다음과 같은 유형과 용례가 있다.

a. 주어와 관형어

重爲輕根 / 靜爲躁君(이상 26장), 善人者, 不善人之師 / 不善人者, 善人之資(이상 27장), 禍兮福之所倚 / 福兮禍之所伏(이상 58장)

b. 주어와 동사의 목적어

柔弱勝剛強(36장) / 天下之至柔馳騁天下之至堅(43장) / 弱之勝強 / 柔之勝剛(이상 78장), 強大處下 / 柔弱處上(이상 76장)

c. 주어와 개사의 목적어

貴以賤爲本 / 高以下爲基(이상 39장) / 有生於無(40) / 天下難事必作於易 / 天下大事必作於細(이상 63장), 合抱之木生於毫末 / 九層之臺, 起於累土 / 千里之行始於足下(이상 64장) / 戰勝以喪禮處之(31장)

d. 동사의 목적어와 개사의 목적어

報怨以德 / 圖難於其易 / 爲大於其細(이상 63장)

상기한 4종류의 기타 대립구조는 두 대립항 사이에 직접적인 의미관계가 발생하지 않아 함의가 불분명하다. 하지만 구 안의 기타 문장성분들이 두 대립항을 연결시키고 있어, 老子가 어떤 의미를 위해 두 대립항을 설정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26장의 '重爲輕根'에서 '重'과 '輕'은 직접적인 의미관계가 발생하지 않지만 기타 성분에 의해 '重'이 '輕根'이 됨을 알 수 있으니, 곧 '重'과 '輕'의 관계는 '去彼取此' 혹은 본말 관계로 볼 수 있으며, 장의 전체 맥락에서 살펴보면 '去彼取此'적 대립구조임을 알 수 있다. 기타 대립구조는 모두 24례, 6종의 함의로 분류할 수 있는데, 그 중 거차취피적 대립관계가 8례, 본말관계를 나타내는 대립구조가 10례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6종의 함의에 따라 분류하면 아래와 같다.

① ‘去彼取此’적 대립

重爲輕根 / 靜爲躁君(이상 26장), 柔弱勝剛強(36장), 天下之至柔馳騁天下之至堅(43장), 強大處下 / 柔弱處上(이상 76장), 弱之勝強 / 柔之勝剛(이상 78장).

② 本末적 대립

貴以賤爲本 / 高以下爲基(이상 39장), 有生於無(40), 天下難事必作於易 / 天下大事必作於細(이상 63장), 合抱之木生於毫末 / 九層之臺起於累土 / 千里之行始於足下(이상 64장), 圖難於其易 / 爲大於其細(이상 63장)

③ 두 대립항의 본성적 가치 긍정

善人者, 不善人之師 / 不善人者, 善人之資(이상 27장)

④ 道の 변증법적 운동성

禍兮福之所倚 / 福兮禍之所伏(이상 58장)

⑤ 道(者)의 속성, 행위에 대한 상반된 인식, 결과

報怨以德(63장)

⑥ 현세의 행위, 사건에 대한 상반된 결과, 방법, 속성

戰勝以喪禮處之(31장)

6종의 함의 가운데, 본말적 관계를 나타내는 대립구조가 10례, 거차취피적 대립관계가 8례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상으로 『老子』에 출현하는 대립구조에 대해 NP, VP 유형별 그 함의에 대해 살펴보았다. 8종의 함의가 특정 NP나 VP유형에 집중적으로 표현되는 경향을 띠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NP, VP유형별, 그리고 함의별 대립구조의 출현빈도수를

나타내면 아래의 표와 같다.

표. 『老子』 대립구조의 NP, VP유형별 함의

		병렬	편정	주술	술목	수식	연합	기타	합
두 대립항의 가치 차등	去彼取此적 대립(1-1)	1				8	32	8	49
	本末적 대립 (1-2)						1	10	11
두 대립항의 가치 동등	상대적 구분 (2-1)	8		2			2		12
	본성적 가치 (2-2)						5	2	7
	상호보완성 (2-3)						13		13
	변증법적 운동성 (2-4)	1		2		6	2	2	13
현세의 상반된 인식과 결론	道(者) (3-1)		6	33	16	29	43	1	128
	현세 (3-2)			27		20		1	48
합		10	6	64	16	63	98	24	281

먼저 함의별로 볼 때, ‘去彼取此’적 대립관계는 연합구조에서 주로 나타나고 있는데, 연합구조에 해당하는 ‘去彼取此’구를 보면 알 수 있듯이, ‘去取’의 대상이 대부분 역접관계로 이루어진 연합구조를 띠기 때문이다. 본말적 대립구조는 한례를 제외하고 모두 기타구조에서 나타나는데, “有生於無(40장)”처럼 주어와 개사의 목적어 관계로 출현하기 때문이다. 상대적 구분의 경계를 나타내는 대립구조는 병렬구조의 형태로 많이 나타나고 있다. 살펴보았듯이, 2장의 ‘有無相生’처럼 의미 유형이 대등한 대립항이 주어의 자리에서 반복해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본성적 가치나 상호보완성을 나타내는 대립구조는 순접관계를 나타내는 연합구조에서 대부분 출현하고 있다. 변증법적 운동에 관한 대립구조는 비교적 다양하게 출현하고 있으며, 수식구조에서 보다 많은 6례가 출현한 것은 36장에서 4례가 반복적으로 조건과 가정의 관계로 도의 운동성을 논하고 있기 때문이다. 도의 속성에 대한 현세의 상반된 인식을 나타내는 함의는 전체 대립구조의 45%를 육박한다. 마치

막의 현세의 사건에 대한 상반된 결과를 나타내는 함의를 포함하면 60%를 넘어선다. 이는 老子가 대립구조를 통해 나타내려고 한 주된 목적이 도를 밝히기 위해서이고, '不言之教'라고 스스로 밝혔듯이, 직설적인 화법을 피해 역설이라는 대립구조를 통해 나타내려 했던 의도가 반영된 결과이다. 출현빈도가 높은 만큼 병렬구조를 제외한 모든 구조에서 나타나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주술, 수식, 연합구조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주술, 수식구조는 거의 대부분이 'A는 B', 'A라면 B', 'A이므로 B'의 형태로, 역설적 화법을 사용하여 일반인들의 인식과 상반되는 도의 속성을 나타내거나 현세의 사건에 대한 도의 각도에서 현세에서의 상반된 결과를 나타내는데 사용되고 있다.

NP, VP유형별로 볼 때, 병렬구조는 대부분이 상대적 구분에 대한 한계성을, 편정, 술목구조는 오직 도의 속성과 상반된 현세의 인식만을 나타내고 있다. 주술, 수식구조 역시 거의 대부분이 도와 현세에 대한 상반된 인식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연합구조는 도의 속성에 대한 현세의 상반된 인식을 가장 많이 나타내고 있지만, 특이한 점은 '去彼取此'적 대립관계의 대부분을 구현해 내고 있다. 언급했듯이, 연합 대립관계가 가장 높은 출현빈도를 보이는데, 이는 대구와 대조, 역설의 표현을 나타내기에 순접, 역접관계를 활용한 연합구조가 가장 적합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전 연구의 대립구조 분석을 이어, 대립구조를 NP, VP유형으로 나누어 8종 함의와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았다. 기타구조를 포함한 병렬, 편정(명사성), 주술, 술목, 수식(동사성), 연합구조의 7종이 각각의 구조적 특성에 따라 8종의 함의를 나타내었다. 병렬, 편정, 술목구조는 출현 빈도가 비교적 낮다. 병렬구조는 2장의 '有無相生'장에서 집중적으로 출현하여 거의 대부분이 상대적 구분에 대한 경계를 나타내고 있으며, 편정, 술목구조는 오직 도 혹은 도자의 속성과

행위에 대한 현세의 상반된 인식과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주술구조는 주로 판단문, 묘사문의 형태로 대부분이 도 혹은 현세의 사건에 대한 상반된 인식과 결과를 나타낸다. 수식구조 역시 주술구조와 비슷한 출현빈도와 함의를 나타내고 있으며, 대부분이 조건-결과, 원인-결과의 의미구조를 띠고 있다. 연합구조는 7종의 구조 가운데 월등히 높은 빈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대구의 형태와 순접, 역접의 의미 구조를 나타내는 연합구조가 대립구조를 나타내기에 가장 적합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7종의 함의를 나타내고 있는데, 그 중에서 도의 속성에 대한 상반된 인식과 ‘去彼取此’적 대립관계가 비교적 높은 출현빈도로 출현하고 있다. 기타구조에서는 ‘去彼取此’적 관계와 본말의 관계를 나타내는 함의가 비교적 많이 출현하는데, 이 때는 두 대립항이 각각 주어와 동사의 목적어 위치에서, 혹은 주어와 개사의 목적어 위치에서 기타 문장성분의 도움을 입어 이러한 대립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參考文獻〉

- 吳澄, 『道德真經吳澄注』, 上海, 華東師範大學出版社, 2010.
 林希逸, 『老子虞齋口義』, 上海, 華東師範大學出版社, 2009.
 範應元, 『老子道德經古本集注』, 上海, 華東師範大學出版社, 2010.
 高明, 『帛書老子校注』, 北京, 中華書局, 1996.
 高亨, 『老子註釋』, 鄭州, 河南人民出版社, 1980.
 林語堂, 『老子的智慧』, 西安, 陝西師範大學出版社, 2004.
 許抗生, 『帛書老子註釋及研究』, 杭州, 浙江人民出版社, 1982.
 夏旦大學哲學系老子註釋組, 『老子註釋』, 上海, 上海人民出版社, 1977.
 朱謙之, 『老子校釋』, 北京, 中華書局, 1984.
 陳鼓應, 『老子今注今譯』, 北京, 商務印書館, 2003.
 馮友蘭, 『中國哲學簡史』, 北京, 新世界出版社, 2004.
 안동립 역주, 『장자』, 서울, 현암사, 1993.
 최진석, 『老子的 목소리로 듣는 도덕경』, 경기, 소나무, 2001.
 최진석, 정지욱 역, 『老子義疏』, 경기, 소나무, 2007.

- 김학목, 『老子 도덕경과 王弼의 주』, 서울, 홍익출판사, 2012.
임채우, 『王弼의 老子주』, 경기도, 한길사, 2005.
김용옥, 『老자와 21세기』, 서울, 통나무, 1999.
이경무, 「老子 철학에 있어서의 역설과 부정」, 『법한철학』 제59집, 2010.
안희진, 「『老子』, 그 역설의 문학을 논함」, 『중국학』 제51집, 2015.
오진탁, 「『도덕경』에서 ‘正言若反’의 철학적 함의」, 『인문학연구』 2·3집합본호, 1996.
오테석, 「老子 도덕경 기호체계의 상호텍스트성 연구」, 『중국어문학지』 제49집, 2014.
오테석, 「역설의 즐거움: 노장 존재론의 부정성」, 『중국어문학지』 제51집, 2015.
이소동, 「『老子』 ‘道’, ‘有’, ‘無’의 관계에 대한 문맥적 고찰」, 『중국문학연구』 70집, 2017.
이소동, 「『老子』 대립구조의 유형과 함의 분석」, 『중국문화연구』 42집, 2018.

〈Abstract〉

Analysis of the Implications of NP and VP Types
of the 『LAOZI(老子)』 Opposition Structure

Lee, So-Dong

In this study, we divided the 『LAOZI』 opposition structure into 7 types of NP and VP, examine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eight types of implications. Seven kinds of parallel structure, modifier-head structure, verb-object structure, subject-predicate structure, adverb-head structure, union structure, including other structures, showed eight implications according to their structural characteristics. The appearance frequency of parallel structure, modifier-head structure, verb-object structure is relatively low. subject-predicate structure is mostly in the form of a judgment statement or a description form, which shows the contradictory perceptions and results of ‘道’'s attributes or temporal events. Adverb-head structure also indicates the appearance frequency and similarity with subject-predicate structure.

The union structure occupies a much higher appearance frequency among the seven types, the reason for this is that the union structure that expresses the distich form and

the adversative structure, is most suitable for showing opposition structure. The union structure shows all 7 implications. Among them, the contradictory perceptions and results of ‘道’'s attributes and the ‘去彼取此’ opposition structure appear at a relatively high frequency.

Key words: 『LAOZI』, DAO(道), opposition structure, implications, ‘去彼取此’

이 논문은 2019년 4월 25일에 접수되어 2019년 5월 2일에 심사가 완료되고 2019년 5월 14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

